

목포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체결



주민공동체와 함께 관광활성화 도모 다음달 25일까지 참여 신청서 접수

목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지난 14일 관광두레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인 '두레'를 '관광'에 결합한 것으로 관광은 비즈

니스를 의미하고 두레는 주민사업체를 상징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문화관광도시라는 브랜드를 확보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와 관광사업을 주민이 주축을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았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는 ▲관광두레 PD 활동 지원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관광두레 사업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PD 인력 및 주민사업체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dure@knto.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7월중 서류평가를 거쳐 관광두레 아카데미 과정을 실시한 후 9월중 '예비 주민사업체'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관광두레사업이 목포시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참여자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에 발 벗고 나서

SSG.COM과 함께 '함평먹거리와 문화의 만남' 주제로 온라인 특별기획전

함평군이 관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단순 온라인 판매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쇼핑몰 내 '함평군 브랜드관'을 연중 운영함은 물론, 함평자동차극장 등 군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프로모션 추진으로 판매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신세계 쇼핑몰 SSG.COM과 함께 '함평먹거리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 이번 기획전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생산 조생양파 등관내 25개 농축특산물 생산농가가 참여해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함평자동차극장과 엑스포공원 야경 등 관광 콘텐츠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자체 쇼핑몰을 구축한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등의 '높은 판매수수료'라는 문턱에 부딪혀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중소 농가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판매 시장은 더욱 확장되고 있어, 농·특산물 역시 온라인 판로 확보는 필수적 과제"라며, "함평군 자체 쇼핑몰이 구축되고, 여기에 유명 쇼핑몰과 남도장터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안정적 판로가 없어 고민이던 함평군 농·특산물 생산업체 및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암군, 신북면 '스트레스 치유길' 조성

영암군은 신북면 이천리 냉천계 주변에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치유길"을 조성했다. 신북면 이천리 이목동마을 냉천계는 신북면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서 면 소재지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운동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어 평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군은 총연장 2km 산책로 정비와 데크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치유길 조성으로 돌레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영암군 신북면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치유와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 해수욕장 정화활동 실시

신안군 하의면(면장 이영욱)은 포스트 코로나 관광지 재생산을 위해 지난 13일 대야도 해수욕장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을 통해 지난 겨울 강풍의 영향으로 유입된 맹생이모자반을 비롯한 폐어구, 페스티로폼, 폐비닐류, 폐플라스틱 용기 등 해양쓰레기 약 20톤을 수거했다. 하의면은 정결한 해양 경관 조성 및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매월 셋째주 연안정화회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욱 하의면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안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군, 두릅 재배 확대 위한 재배·기술 교육 실시

주용우 전북 순창산림조합 지도협업과 과장 강사로 초청



영광군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관내 두릅 재배 희망 인가 25여명 대상으로 "두릅 재배·기술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나물인 두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재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주

진하였다. 군은 두릅 재배 전문가인 전북 순창산림조합 지도협업과 주용우 과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수확시기 및 방법, 병해충관리, 선별 및 포장, 수확 후 관리, 입야에 두릅 재배지 조성 시 검토할 사항과 노지재배와 산지재배의 차이점 등 농업인이 각자 상황에 맞는 두릅 재배를 시작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오는 10월 실시 예정인 현장교육을 통해 두릅 재배농가 확대와 향후 두릅 작목반을 구성하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재배운용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수산종자 방류 실시...어족자원 회복 '박차'



무안군이 해양환경 변화, 남획, 불법어업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는 어족자원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홀통항, 톱머리항,

도리포항에 감성돔 종자 29만 미와 점농어 종자 17만 1천 미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과 점농어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은 무안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 자원회복을 위해 낙지 금어기(6.21. ~ 7.20.) 이전에 인공교잡한 어미낙지 4,800미를 방류하고,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중심으로 방류를 적극 실시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베스, 블루길 등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달 망운면 압창해역과 장재해역 일대에 해상가두리를 설치해 어미주꾸미 120kg를 입식한 바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